[집중취재]
개발 따른 사찰 피해사례는

"수행환경 침해, 시간만으로 안 풀려"

윤호섭 · 하성미 기자

최근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와 천년고찰 소요사 인근에 건립 추진 중인 양돈장을 두고 불교계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수행환경 침해 문제가 재차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2~3년 전 잇따른 도시개발에 따른 수행환경 침해 제보의 경과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삼척 안정사는 국책사업인 국도38호선 삼척 도계~신기 도로건설공사로 인해 폐사 위기에 내몰렸다. 본선 도로 공사에 해당되는 1만4392㎡가 편입되고, 공사가 이뤄지면 사찰이 제 기능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3민사부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토지 지상 수목 등에 관한 정당한 보상가액 산정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안정사 주장 일부를 받아들이며 △신청 취하 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 인용 결정에 따른 감정평가서가 제출될 때까지 "입목 · 수목을 굴취하거나 벌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시공사와 사찰 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에 따르면 안정사 측은 50여 건에 달하는 고소를 받았으며, 통장까지 가압류 돼 지난

안정사 · 수도사 여전히 미해결
시공사 측과 합의점 못 찾아
"시간만 흘러 어려움 가중돼"
이외의 사찰들은 대부분 해결

해 8월부터 재정이 마비된 상태다. 현재 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는 중단됐지만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다여 스님은 "막무가내 공사로 인해 대웅전에 균열이 발생하고, 법당에 물이 새는데 수리도 못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결과가 나오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어려움은 계속될 것 같다"고 호소했다.

같은 해 이천~오산 구간 고속도로 건설로 수행환경 침해 위기에 놓인 경기도 광주 수도사 역시 안정사와 비슷한 상황이다. 수도사 주지 청호 스님은 "도로공사로 인해 땅값이 오른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다. 시공사 측과 대치하고 있지만 해결점은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몇몇 사찰은 시공사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더 이상의 논란 없이 문제를 해결했다.

성남 봉국사는 인근 K아파트에 재건축 공사 허가가 나면서 발파작업 등으로 인해 대광명전 등에 훼손이 발생했다. 이에 봉국사는 외부 용역을 통해 공사로 인한 진동과 먼지량 등을 조사하고, 공사중지 가처분소송 등을 제기하며 대응했다. 특히 8개월간 불자들이 번갈아 공사현장에 방문해 감시하면서 시공사를 비롯한 아파트조합 측과 보상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부산 해운정사는 사찰 앞에 부산 최대 재개발지역인 해운대구 우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에 지상 39층 높이 아파트 3천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해운정사로 들어서는 진입로가 2차선밖에 되지 않아 불편함이 예상됐다. 다행히 이 같은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진입로를 4차선으로 확장했으며, 아파트 높이도 일부 낮추는 등 큰 논란 없이 해결됐다.

부산 청량사는 한국수자원공사서 진행 중인 '에코델타시티' 공사로 인해 경내지 250여 평이 공사부지로 편입됐다. 이에 부산 강서구 내 유일한 전통사찰인 청량사는 전통문화 및 수행환경 훼손의 위협을 받아 강력히 반발했다. 현재는 양측 합의가 거의 마무리돼가는 단계로 알려졌다.

청량사 주지 운암 스님은 "현재 구두로 합의는 어느 정도 된 상태다. 대토나 진입로 등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지만 최종 서명만 남았다"면서 "그래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어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북미정상회담 조속 개최 필요"

김용현 동국대 교수
2018 민족화해 심포지엄에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국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대한 빨리 제2, 3차 북미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교수는 이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가 6월 18일

7월 27일 종전선언 예상
선순환 관계개선 의미부여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도전'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북미정상회담은 제2, 제3의 북미정상회담과의 연속성 속에 있다. 최대한 빨리 조기 개최해야 한다"며 "1차 북미회담의 최대 목표이자 성과는 구체적 플랜의 보따리가 아니라 상회 신뢰 구축"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남북미 종전선언은 7월 27일 판문점에서 이뤄진다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9월 유엔총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빠져 김 위원장의 승리,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라고 보는 것은 "판 자체를 잘못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함께 돌아가는 선순환적 진행의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공동성명에 '새로운 북미관계'라는 대목이 있는 것과 관련 "전쟁과 적대, 대결 구도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 평화 관계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핵화의 의미있는 입구"라고 평가하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며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 수 없듯이 앞으로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유리그릇 다루듯 진지하고 신중하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 비핵화의 이행과정은 샅바싸움과 같이 험난한 길이다. 쉬운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어려운 것은 쉬운 것에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선 "예정된 가을 평양 남북정상회담 외에도 연내 수차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가 가닥을 잡아가면서 대북제재 등 완화 움직임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도 비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포지엄에는 발표자들 외에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박진형 기자

포교원 7월 4일 '신도품계, 전환 모색' 포교종책 연찬회

조계종 신도품계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논의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7월 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도품계, 전환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제76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시행 8년차를 맞이하는 신도품계를 점검하고 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도품계 제도는 신도의 교육과 신행에 기반한 단계별 신도조직화와 함께 신도 종단 소속감 고취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신도품계 제도는 품계별 성취동기 부여나 사찰운영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포교원 측은 "'교육과 신행에 기반한 신도조직화'는 여전히 중요한 포교 종책의 과제"라며 "재가불자의 리더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제도를 평가하고 신도품계 제도의 혁신을 통해 지역과 사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홍콩 사로잡은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한국불교사업단 체험부스에
여행 · 관광업계 3천명 몰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6월 11~17일 홍콩과 한국에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알렸다.

먼저 주홍콩한국문화원과 11~13일 '홍콩 한국불교문화 체험주간'을 개최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사진전, 지화연꽃 만들기, 인경체험, 사찰음식 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특히 사전 참가신청을 통해 진행된 사찰음식 강의에는 수용인원의 3배 이상 참가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3일간 이어진 행사에는 400여 명의 체험객들이 다녀갔다.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은 14~17일 홍콩 완차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홍콩국제박람회'서도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여행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일반인들을 위해 △전통문양 컵받침 만들기 △연꽃등 만들기 △한지부채 만들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기업과 개별 참가자들의 템플스테이 상담이 400여 건, 템플스테이 홍보부스 방문자가 3000여 명에 달했다.



홍콩에서 열린 국제박람회 체험부스를 찾은 홍콩시민들이 사찰음식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또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14~15일간 열린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2018'에서는 전등사 · 한국문화연수원과 함께 상담부스를 운영했다. 총 104개 관광 · 여행업체 등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14~1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한국국제관광전'에서는 최우수 부스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앞으로 진행될 이탈리아, 캐나다 등 해외 홍보행사에서도 이 같은 성과를 기대하며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의 대중화 ·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통일쌀, 올해엔 북한에 전해지길"

구례 화엄사 등 통일쌀 공동경작에 힘 모아

"올해는 부푼 꿈을 안고 통일쌀이 북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손으로 정성껏 모를 심읍시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의 평화적 교류가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 속에 북한에 보내는 통일쌀 모내기 행사가 열렸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와 구례군농민회(회장 윤명순), 구례군여성농민회, 기아자동차광주지회는 6월 21일 전남 구례군 토지면 들녘에서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쌀 공동경작 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

구례군통일쌀은 지난 2007년부터 화엄사와 노동자, 농민이 함께 '통일경작단'을 구성하고 화엄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2만평 규모 논에 공동 경작한 쌀로 북한의 소외계층을 위한 것이다.

행사에는 부주지 영원 스님, 사회국장 해덕 스님, 도운 스님, 덕홍 스님과 학인 스님을 비롯해 구례군 농민회 윤명순 회장, 김순오 구례군수 당선자, 기아자동차광주지회 김대용 수석부지회장 등 농민과 노동자들이 참여해 모내기 행사에 힘을 보탰다.

구례군통일쌀은 과거 남북 간 경색국면으로 인해 지난 2011년부터 경작한 쌀을 북한에 지원하지 못했다.

화엄사 영원 스님은 "올해는 많은 분들이 소원하는 것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성껏 통일쌀 경작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직접 모판을 옮기고 모줄을 띄워 손 모내기를 하면서 통일쌀 경작에 정성을 모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홈페이지 www.maumtour.com 문의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조계종 승려연수교육과정 인증프로그램
인증번호 : 대불교연인 2018-030호

2018 불교성지순례와
달라이라마 특별법문

접수마감 ※ 선착순 모집
6월 30일 까지

법회일정 2018년 9월 4일 ~ 9월 7일(4일간)
법회장소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주 관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 역경원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여수 석천사

8월 28일(화) ~ 9월 9일(일)
A팀 달라이라마 법문 &
스리랑카 순례 13일
35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8월 28일(화) ~ 9월 9일(일)
B팀 달라이라마 법문 &
부탄 성지순례 13일
41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9월 02일(일) ~ 9월 9일(일)
C팀 불교란 무엇인가?
달라이라마 법문 8일
19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8월 27일(월) ~ 9월 9일(일)
D팀 달라이라마 법문 &
인도 성지순례 14일
29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